독일, 온실가스 배출 40% 감축

2020년 에너지 효율화 목표 구체화 ... 재생에너지 비중 30%까지

독일 정부는 기후보호를 위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을 증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30개항에 달하는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기 위한 구체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책을 주도하고 있는 독일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전체 에너지 사용량 중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을 현재의 12%에서 2020년에는 30% 선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독일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연료와 난방용 에너지 등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을 2020년까지 매년 3%씩 증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방안은 신축 건물의 난방 효율을 높이고 태양열 등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을 늘리도록 하고 있다. 기존 건물과 주택에 대해서는 난방 장치와 창문을 교체해 열 효율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교통 분야에서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 엔진의 효율을 높여 2012년까지 운행거리 km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의 164g에서 130g으로 줄일 계획이다.

독일 정부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40%를 차지하는 난방용 에너지와 20%를 차지하는 자동차 연료 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방안은 8월23-24일 열리는 독일 내각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8/21>